

中國의 講唱文學과 관소리

金 學 主 (서울大學校文理大)

一. 中國의 講唱文學

講唱이란 講說과 唱曲을 엮여가며 한가지 故事를 叙述한다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어떤이는 이를 「說唱」이라고도 하지만 사람들이 講唱의 한 種類를 가리키어 說唱이라한 境遇도 있음으로 講唱이라 부르는것이 總括的인 名稱으로서는 더 좋으리라 여겨진다.

中國에서는 唐代의 「變文」을 嚆矢로하여, 宋代에는 鼓子詞, 話本, 覆賺, 諸宮調, 貨郎兒, 陶眞, 涯詞 등으로 講唱이 發展하여 極盛을 이루었다. 元明清代에도 이들 講唱은 民間에 如前히 繼承盛行되어 다시 寶卷, 叙事道情, 詞話 (詩話, 評話), 叙事蓮花落, 唱詞, 文詞說唱, 打談, 門詞, 唱本, 彈詞, 鼓詞 등이 생겨났다. 또 보통 때면 이 講唱중에서 精彩있는 唱의 部分만을 따서 많이 노래불리웠다. 大鼓·子弟書·快書 같은 講說이 빠진 形式의 것들은 이러한 「摘唱」에서 부터 發達한 것일 것이다.

이들의 共通特質은

1. 한사람이 講說과 唱으로서 얘기를 여여러사람들 앞에서 한다 (鼓子詞 처럼 講說者와 唱者가 다른 것도 例外로 있다.)
2. 講唱者는 스스로 북, 拍板, 鐵片 또는 絃 같은 簡單한 樂器로 拍子를 맞춘다 그리고 講唱者 이외에 한두명의 樂器伴奏者가 따른다.
3. 故事內容은 各樣各色이나 後世로 오면서 더욱 長篇化한다. 그리고 그풀롯트는 變化가 많고 登場人物들이 小說이나 戲曲보다 多樣하다.
4. 唱曲이나 對話에 劇的인 要素가 많다.
5. 한사람이 講唱하는것임으로 叙事曲折이 委家하여 人物의 精態描寫가 一般 小說, 戲曲보다 細密하다.
6. 伶人들 以外에 特히 장님이나 거지들이 講唱을 배워 各地로 流浪하여 演出함으로써 糊口하였다.

二. 鼓詞와 彈詞

明初講唱文學은 南北에 通行된 「詞話」와 南方에 流行된 「陶眞」의 두 主流로 大別할 수 있다. 그런데 陶眞系統의것은 嘉靖年間 (1522~1566)에 彈詞로 「詞話系統」의것은 明清之際에 北方에서 鼓詞로 發展하였다. 彈詞는 絃, 鼓詞는 북으로 節拍

한다는 基本的인 差異가 있으며 이들은 지금까지 中國講唱의 兩大主流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판소리가 英祖時代를 前後하여 發生한 것이라면 中國것의 판소리에 의 影響은 우선 彈詞와 鼓詞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彈詞의 基本은 敘事體로 된 것과 代言體 (清代로 들어오면 大部分이 代言體) 로 된 것이 있으나, 鼓詞는 모두 敘事體로 되어 있다. 甚至於 彈詞의 基本에서는 「表 (作者)白」 「表唱」 「末白」 「末唱」 「旦白」 「旦唱」 「丑白」 「丑唱」 하고 完全히 戲曲의 脚色名 까지 쓴 것들이 있다.

故事內容을 보면 彈詞에는 才子佳人의 離合故事가 많고 鼓詞에는 激昇慷慨한 歷史故事가 많다. 그 길이는 大部分이 長篇으로 數十冊의 分量에 達하는 것이 普通이다.

唱詞는, 彈詞는 七字를 爲主로하여 三字句를 加하기로 하여, 鼓詞는 十字句가 原則이나 그中 三字는 襯字의 性格을 띄고있음이 보통이다.

使用한 樂曲에는 戲曲처럼 南北調의 區別이 있고 崑腔, 高腔, 亂彈, 梆子腔, 十排腔, 二簧腔, 弦子腔, 絹腔, 囉囉腔, 肘鼓子腔 등으로 區分된다. 그밖에 各地方의 山歌와 小唱도 들어있는데, 鼓詞에 그러한 鄉土色이 더 짙다. 唱詞의 體裁를 보면 詩·詞·讚·套數·篇子가 있으나 篇子가 爲主이다. 篇子는 一回中에서 한 段落을 나타낸다.

(附) 打令

판소리에 여러가지 異稱이 있으나 그中에서도 獨特하고 또 다른 곳에도 많이 쓰이는 것은 「打令」이란 말일 것이다. 中國에도 打令이란 말이 있었으나 그 뜻이 曖昧하다.

南宋 朱熹 經世大訓, 「唐人俗舞, 謂之打令.」

范攄 (877前後人) 雲溪友議下, 「裴誠. 溫岐作楊柳枝, 當時飲筵競唱打令.」

太平廣記422, 「乃云, 二刺蜻對打令, 既合節奏, 又中章程.」 (尙書故實) 上記引用文中 첫째 것과 셋째 것은 分明히 打令이란 「俗舞」 또는 춤을 가르키나 둘째 「競唱打令」은 춤이라고만 斷定할 수는 없다. 打나 令이 모두 노래와 춤과 대단히 密接한 關係가 있는 글자들이어서 打令이란 춤과 노래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말임에는 틀림없다. 中國에서 이처럼 打令이 어떠한 뜻으로 쓰였는지 正確히 알 수는 없지만 或是 우리나라의 「打令」이란 말도 中國으로 부터 들어온게 아닐까 싶어진다.

3. 三講唱文學과 小說 戲曲

中國에서 本格的으로 故事를 記述하는 文學으로 이 講唱과 小說, 戲曲을 들 수 있다. 그런데 中國의 故事는 民間에 口傳되는 사이에 그것이 小說 또는 戲曲의 名作

을 낳는다는것이 特徵이라 할것이다. 그리고 民間에서의 流傳은 說話人이나 伶人 또는 講唱者들의 입을 빌리는것이 보통이다 한사람 또는 몇사람이 긴 얘기를 聽衆들에게 들려주자면 얘기만으로는 지루하니까 노래를 섞게된다. 따라서 中國의 講唱이나 戲曲은 勿論 小說까지도 모두 노래의 要素가 섞여있다.

우선 唐代의 傳奇小說에도 詩가 많이 混用되어있으며 蔣防(813前後人)의 霍小玉傳의 對話 같은것을 보면 大部分이 四言으로 된 吟詠體이다. 明代의 章回小說에도 每回末에 「未知後事如何, 且聽下解分解」라는 話體의 常套語를 쓰고 文中에는 詩詞를 많이 插入하며, 얘기가 始作될때에는 「話說」 「却說」 「且說」 등의 常套語를 쓰고, 每回末에는 흔히 詩나 一對의 駢語를 붙이는것等 講唱의 殘滓가 짙다. 宋代 話本은 純全한 講唱이니 이렇게보면 中國小說은 成分의 多寡는 있으나 原則적으로 講唱의 性格을 띠고있다 하겠다.

이렇게볼때 絕對的인 正義는 못되지만 노래보다 散文的인 敘述을 中心으로 故事를 記述한것이 小說이고, 노래와 散文의 成分이 比等한것이 講唱이고, 노래를 中心으로 科白이 보태어져 故事가 演出되는것을 戲曲이라한다고 簡單히 말할 수도 있다.

4. 四 結

講唱을 散文化하면 小說이되고 (例, 宋代話本), 또 그것을 立體化시키면 戲曲이 된다. (例, 董解元의 西廂記諸宮調와 王實甫의 雜劇西廂記) 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講唱文學을 한개의 장르로 獨立시키면 別問題이지만, 文學史에서 다뤄야하느냐는것은 問題가 된다.

中國의 境遇, 講唱을 文學作品으로 다룰때 그 大部分은 小說과 密接關係가 있거나 小說化하였음으로 大部分 小說史에서 다뤄진다. 그러나 諸宮調처럼 戲曲發生에 直接的인 影響을 끼친것은 戲曲史에서도 다뤄진다.

우리나라 판소리도 역시 그러한 角度에서 國文學史에 다뤄져야하리라 믿는다. 例로 春香傳이 京板本은 小說이라면 역시 판소리는 小說史에서 다뤄져야하지않을가 생각된다.